

## 現代建築에 있어서의 五大이즘 (完)

〈다음은 英國태생으로 현재 美國콜롬비아 대학교수로서 과거 설계 실무를 거쳐 지금은 건축평론가로도 활약 중인 케네스·후램프턴(Kenneth Frampton)교수가 지난해 7월 8일 일본 동경대학 건축과 대학원에서 행한 강연 내용을 A+U誌 81년 10월호에서 보고 옮긴 것이다. / 편집자 /〉

네번 째 이즘은 構造主義(Structurism)이다. 이 이즘의 발단은 네덜란드이며 구조주의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알도·반·아이크를 들 수 있다. 다만 구조주의의 경우는, 다른 이즘의 경우와 같이 教科書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한 권의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도·반·아이크에 의한 1950년 중반 경부터의 일련의 小論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포퓰리즘이 문화적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지기 쉬운 반면, 프로덕티즘이나 내셔널리즘은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것은 여러분도 느낄 것이다. 그것들과 비교해 볼 때 알도·반·아이크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人類學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단순히 西洋的인 思考에만 그치지 않고 서양 이외의, 예를 들면 이슬람文化나 아프리카文化에도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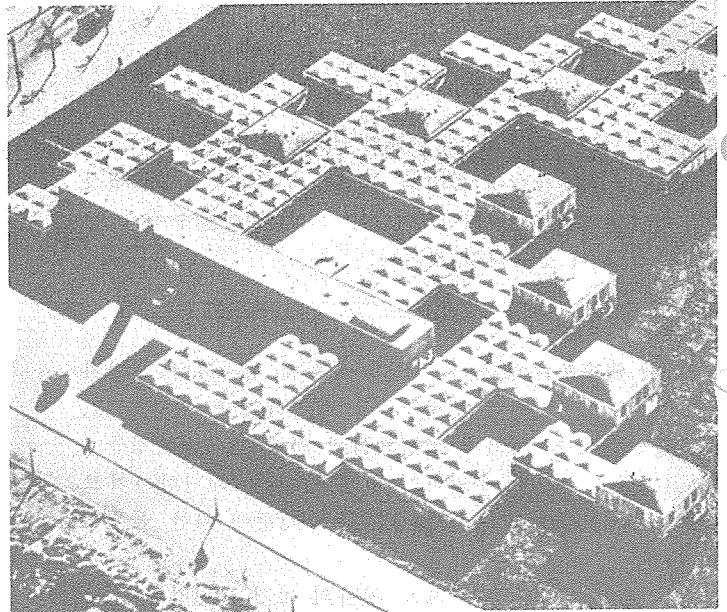
반·아이크의 문장에 〈迷路〉, 〈迷路가 가지는 明晰〉이라고 한 말이 있다. 예를 들면 그에 의한 파빌리온이나 아이들의 집(1958년)에서 이 말의 의미를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들의 집은 大小의 공간이 다양하게 組合되어 있어, 말하자면 正面이 없는 건축이며 平面 또한 대칭형이 아니다. 그러나 극히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명확한 場을 가지고 있다.

이 場이라는 개념의 강조는 내셔널리스트(Nationalist)들에게도 돋보이게 하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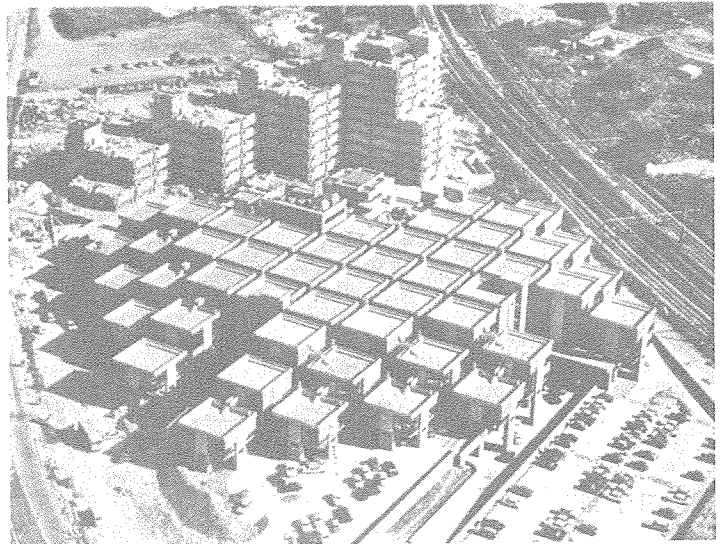
반·아이크의 제자들 또한 迷路·場이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건축을 디자인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피에트·부룸의 學校프로젝트는 이슬람建築의인 場의 요소를 지닌 안이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아이크의 思考를 가장 명쾌하게 표현해 준 예를 든다면, 역시 반·아이크의 제자인 헬만·헬즈벨하의 보험회사建物を 들 수 있다. 이 건축은 틀림없는 迷路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 作品과, 프로덕티즘으로 처리한 포스터의 보험회사建物を 비교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있는 일이다. 공간의 構成方法은 전혀 대조적이라고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構造의 건축가들은, 건물은 인간이 그 속의 場을 소유하고 이용함에 따라 처음으로 그 건물에 대한 깊은 의미가 이해되고 인간과 연관을 맺게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포퓰리즘의 사고와는 정반대의 말이다. 포퓰리즘적인 건축가들은 건물을 항상 시각적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박공지붕이 시설되어 있으면 그곳이 입구라는 類의 생각을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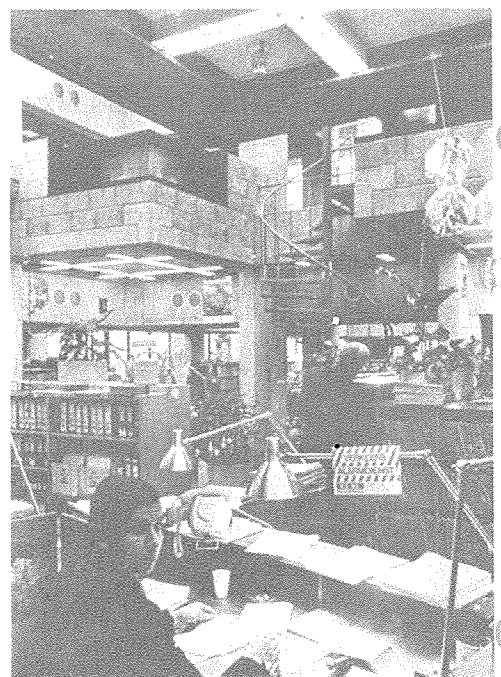
構造의인 사고로 만들어진 건축은 迷路的構成을 가지고 있긴 하나 자세히 보면 構造시스템이나 施工시스템을 노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헬즈벨하의 作品은 이러한 점



알도·반·아이크/ 암스테르담의 市立孤兒院 · 1955



헬만·헬즈벨하/ 센트랄·비히어·오피스빌딩 · 1972



헬만·헬즈벨하 / 센트랄·비히어·오피스빌딩 · 1972

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건물의 入口를 강조할 수 없을뿐더러 건물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일도 어려워진다. 헬스벨하의 건물을 보고 口가 어디라는 것을 즉시 이해하기란 어려운 일이며, 바로 이 점이 앞서 말한 포스터의 작품과 일치되는 공통점인 것이다. 프로덕티즘, 構造主義의 각각의 대표작이기도 한 兩者는 어디가 입구인지, 무슨 건물인지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공통의 결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 이즘으로서, 먼저 두장의 슬라이드를 보아 주었으면 한다. 한장은 스위스의 베린초나이며, 스위스의 내셔널리스트인 마리오·뫼터가 비치고 있다. 또한장은 같은 스위스의 아스코넬의 사진이다. 이 두 마을은 스위스에 있으면서도 이탈리아어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슬라이드를 보여 주려고 하는 것은 리저널리즘(Regionalism), 즉 이 말은 감상적인 낡아빠진 풍기를 쓰고 있어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리비전이즘(Revisionism)이라고 부르는 편이 좋으니까 아닌가 생각한다. 바꾸어 말하면 앞으로 리저널리즘이라는 말만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 이 슬라이드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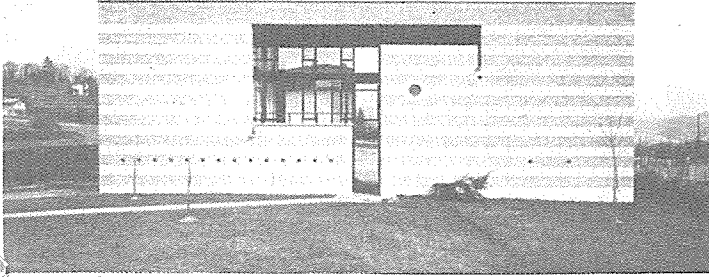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최근 출간된 拙著 <近代建築：批判的歷史>의 마지막 장에서 논한 것이다. 즉 나는 거기에서 生産方法을 통한 건축과 사회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논하였으며, 다섯 분의 건축가가 이 장을 읽고 매우 노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도 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네 가지의 이즘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산방식이나 사회와 건축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近代建築>을 쓰기 시작했던 무렵, 나의 머리 속에는 네 가지의 이즘 밖에 없었으나 이 책을 쓰면서 나는 그것을 되도록이면 논쟁적으로, 즉 議論의 대상이 되도록 생각하였고, 따라서 다섯번 째의 主義가 클로즈 업된 것이다.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리저널리즘이라는 말은 다른 이즘에 비해 폭넓은 의미를 가지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인 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건축의 議論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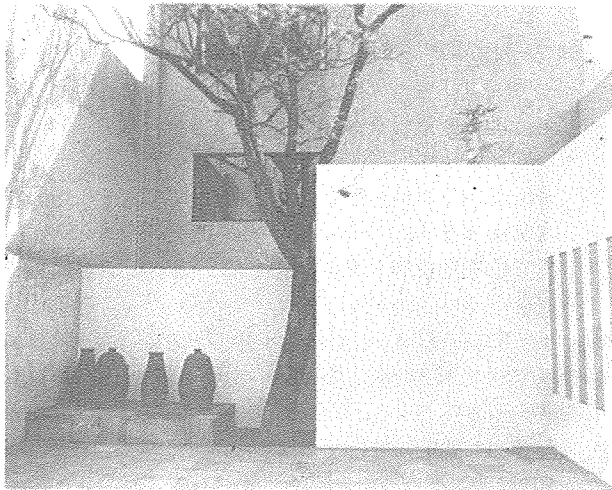
이 리저널리즘을 국제적 人氣熱이라고 말하면 어떨까? 즉 국제적 미디어 속에서 話題가 되고 인기를 퍼뜨리기 위한 건축을 하는 건축가들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또한 國際的帝國主義라고 부를 수 있는 건축에 대해 전세계의 모든 것이 획일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반대한다. 즉 리저널리즘이란 어떤 한정된 지역에 매여진 건축, 또는 건축가를 긍정하는 사고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리저널리즘이라 불리우는 건축을 보기로 하자. 마리오·뫼터의 작품에는, 건축을 지역의 특질 가운데나 도시의 상황 속에 삽입하려고 하는 태도가 역력히 표현되고 있다. 특히 이 주택은, 주위의 결코 良質이라고 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하여 일단 방어적인 壁을 만들고 이 벽을 잘라 내어 내부의 시선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조절한다는 방식을 택하였으며 집 모양도 무언지 모르게 이 지방의 農家를 연상케 해주고 있다. 또한 가지 더 말할 것은 이 주택에는 주위와 일체 격리된 内部化된 테라스가 있고 외벽의 縞 모양 역시 이 지방의 바나큐라와 같은 방법을 인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건물자체가 땅에 굳건히 뿌리를 박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뫼터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질은 어떤 의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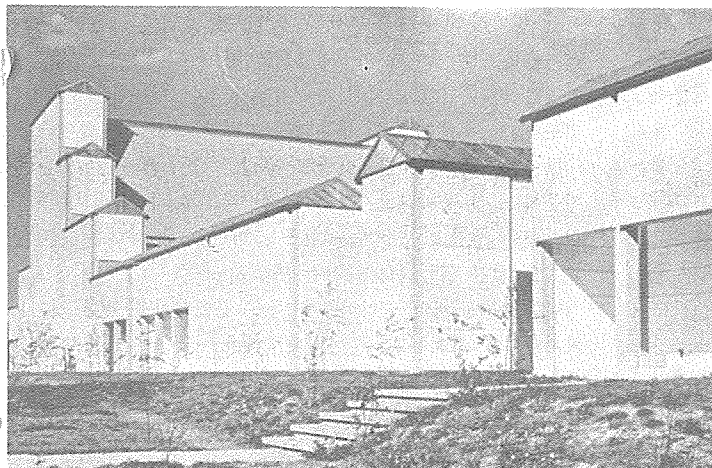
마리오·뫼터 / 리콜넬트의 住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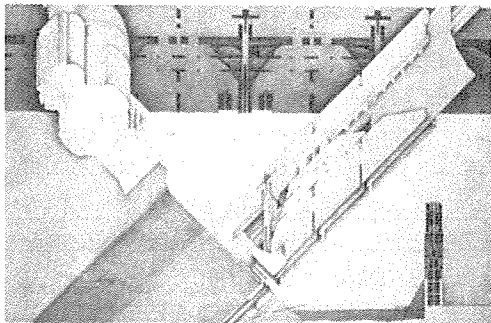
루이스·바라간 / 길러디邸宅 · 1976



알바로·시저·비에이라 / 포어·노바의 레스토랑 · 1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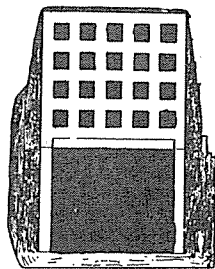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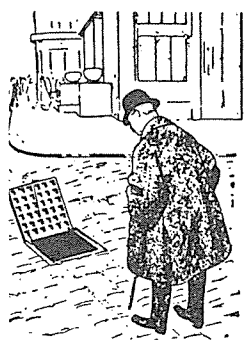
요른·뤼젠 / 바우스베어의 敎會 · 1979



라이몬드·아브라함 / 베네지아의 歷史地區에서의 集合住宅計劃



피터·아이젠만 / 住宅3號



원·미하엘廣場에 건립된 로스의 건축에 대한 풍자화 · 1911

는 역사주의적이라고 말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감상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포퓰리즘과 같이 무엇에서 무엇까지 마음대로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것만은 명백하다.

다음에는 포르투갈의 알바로·시저·뵤에이라의 작품을 보기로 한다.

그의 작품 역시 포르투갈의 大地 위에 강하게 뿌리를 박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극단적인 말로서 표현한다면, 그것이 1920년 경의 건물인지 1970년 경의 건물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무언지 모르게 이 지방에 어울리는 느낌을 주는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멕시코의 루이스·바라간의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와와의 깊은 결합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그곳에서는 텃이나 마당이라는 수법을 잘 활용하면서도 場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볼 수가 있다.

요론·윌존의 많은 작품들은, 이러한 방향을 제시한 작품들 중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의 集合住宅에서는 외벽에 덴마크의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탑은 반드시 덴마크적인 디자인이라고만 할 수 없다. 그것은 때에 따라 스페인이나 中近東을 생각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 작품은 덴마크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다른 문화와의 연결을 암시해 주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점은 위에서 말한 바라간의 주택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주택은 전체적으로 볼 때 멕시코적이지만 中庭의 분수 등은 이슬람을

생각케 해준다.

리저널리즘의 결론으로서 윌존의 코펜하겐에 있는 교회를 볼 것 같으면, 이 작품에는 그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윌존 자신의 드로잉이 있다. 먼저 그것을 보기로 한다.

역시 아크로폴리스 위에 東洋의 파고다가 浮上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건물의 斷面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내부에는 아크로폴리스의인 基壇위에 寺院의 단면형을 가진 공간이 만들어져 있다. 外觀을 보면 덴마크의 農家의인 분위기가 풍기며 벽돌붙임 방법에 따라 내부의 教會空間을 암시하고 있는 작품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보르·리크르는 〈歷史와 眞實〉이라는 제목의 책 중, 한 옛세이를 통하여 매우 흥미깊은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은 國際的인 문화와 개개의 국민적인 문화를 어떻게 통합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보편적인 문명 속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하여 지역적인 문명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오늘의 역사적인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해답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單一文明이 전세계를 지배해 버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문명과 지역적인 문명이 서로 공존해 가는 형태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적으로 볼 때 이 말은 국제적인 범위를 갖는 건축과 지역에 고정된 樣式建築의 통합이라는 말로 換言하게 된다. 그렇다면 윌존의 작품은, 한편으로는 세계의 다른 문화와의 결합을 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덴마크의 농가라고 하는 一箇地域의 고정된 양식과의 연결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丹下健三이 행하고 있었던 일이며 다시 오늘의 篠原一男이 행하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앞서 뱃세노우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지만, 그는 오늘의 내셔널리즘에 통달하고 있을뿐 아니라 윌존 등의 출현을 예기시킨 존재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상이 리저널리즘에 대한 설명인 것이다.

지금까지 오늘의 建築狀況에 있어서의 5대이즘에 대하여 概觀해 본 셈이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건축을 생각할 때 힛트가 될만하다고 생각되는 세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고자 한다.

먼저 처음 것은 유명한 듀산의 〈泉〉(1917년)과 1927년의 칼·맑스호프이다. 前者가 보편적인 문명을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면 후자는 場에 대한 思考를 과시하고 있다.

다음은 아이젠만과 아브라함의 작품이다. 전자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의 자율적인 문제의 형태를 취급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場을 만든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것은 1910년, 아돌프·로스(Adolf Loos)의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 신문에 실린 풍자화로서, 근대인이 어떻게 하여 近代建築의 디자인을 생각해 냈을까를 비꼰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설명할 필요도 없는 〈間〉이라고 하는 漢字이다.

나는 이제 개의 슬라이드를 통해 무엇인가를 결론 짓거나 가치판단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들은 앞으로의 건축을 생각하는데 하나의 議論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그 議論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오늘의 강의를 끝내고자 한다.

끝까지 靜聽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